

졸업 후에도 우리의 공부에는 끝이 없다

어느새 12월이다. 언제나 그랬듯 졸업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날이 다가왔다. 계절이 바뀌듯 학년이 바뀌고, 누구는 학교를 떠난다. 차가운 겨울바람만큼 뚜렷한 사실이다.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 날아간다. 나비들은 어디로 가려는 걸까? 나비가 가려는 곳이 어디든 파스하기를 바란다. 누구보다 힘찬 날개짓을 할 한국체육대학교 나비들을 응원한다.

선배들의 졸업이야기를 통해 나비가 될 애벌레들도 준비를 해보자.

박서진 기자 202190011@m365.knsu.ac.kr

“살면서 중강하는 게 아쉬울 거라 생각 못 했어요”

김우석 학우(사회체육학과 17)

Q. 어디로 유학을 하러 가나요?

영국에 있는 러프버리 대학교에서 스포츠 매니저먼트 석사 과정에 진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스포츠 매니저먼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포츠 경영학과인데요. 현재 학부 생활하면서 경영론이란 스포츠 마케팅 쪽을 넓고 깊게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프버리 대학교는 스포츠 매니저먼트 학과로 세계에서 항상 1위를 하는 대학이라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회체육학과라 체육 관련해서 다양하게 학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넓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싶어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Q. 유학을 선택한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한국 대학원이 아니라 해외로 가는 이유는 경쟁력을 키우고 싶어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사율이 70%가 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석사하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으려면 유학을 하러 가서 학위를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국 석사로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지만, 영어 실력도 보여주면서 학위에서 차별성을 보여주려고 유학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기는 특별하

게 없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유학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세뇌당한 것처럼 당연히 유학을 고민하게 되었죠.

Q. 유학 준비, 어떻게 하면 된다.

합격하고 ‘이렇게 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 제대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네요.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보를 얻고 싶거나 유학 준비에 고민이 된다면 교수님을 찾아가세요. 특히 유학을 가본 교수님한테 가면 좋습니다. 교수님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여러 가지 여쭙보세요. 교수님을 귀찮게 할수록 얻어가는 정보는 많아지거든요. 유학 관련해서 정말 사소한 거라도 계속 여쭙다 보면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돼요. 또 제자가 물어보는데 불성실하게 대답해주실 교수님 없거든요. 저도 지금 교수님한테 많은 도움 받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과 교수님이 아닌 데도 많은 도움 받고 있으니 여러분도 본인을 위해서 두들겨보세요.

Q. 유학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나요?

궁극적으로는 학위를 따는 거겠죠. 그다음은 계속 영국에 붙어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영국에서 학위를 따면 취업 비자가 2년 나오거든요. 2년 동안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학위를 따서 영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일해서 경력을 쌓고 싶어요. 되도록 한국에 안 돌아가고 영국에서 ‘나이키’라든가 스포츠 기업에 취업해서 살고 싶네요. 학위 따고 나서도 더 공부하고 싶어진다면 박사까지 도전할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박사까지 도전한다면 취업보다는 교수 임용에 도전할 거예요.

Q. 졸업하는 기본은 어떤가요?

살면서 중강하는 게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기말고사가 오고 중강이다 가오니가 아쉬워요. 중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군대까지 합하면 한국체대 소속이었던 게 거의 6년 되는데 중강하고 졸업장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른 졸업생들을 볼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무심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가 되니까 졸업이 아쉽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쭉 생각이 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Q. 졸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점 관리 잘해라. 당장 1, 2학년 때 꿈이 학점과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고 싶은 게 바뀔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니까 학점 관리해라’라고 하고 싶어요. 막상 졸업할 시기가 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학점 때문에 못 한다면 너무 아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점 관리 잘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Q. 학교에 들어와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



엇이었고, 이론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1학년 때 이루고 싶었던 건 ‘괜찮은 선배가 되자’라는 거였어요. ‘라떼는’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제가 입학했을 때 선배님들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배가 되면 유하고 친근한 선배가 돼야겠

다고 생각했어요. 정작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괜찮았던 선배로 기억되고 싶었는데 이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노인체육 전문가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오주영 학우(노인체육복지학과 17)

Q. 어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나요?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인문사회전공 체육학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활동과 여러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Q. 창업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진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대상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고 제 스스로의 능력도 더욱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업과 연구의 연장선상으로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원생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경험과 공부를 병행하며 창업에 대한 꿈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지난주에 대학원 면접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땠나요?

너무 긴장한 탓인지 면접을 잘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지 못했어요.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영어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네요. 긴장감과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은 채 진행해서 준비한 걸 잘 보여주려고 싶어요.

Q.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매우 긴장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심정인지, 무엇을 하며 기다릴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면접까지 완료한 상황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학원에 꼭 진학하고 싶어서인지 정말 긴장이 많이 돼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학과 사업이란 연구 활동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려고 해요.

Q. ‘대학원 오지 마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요. 재학 중에 힘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필요한 것일지 합리적으로 판단해보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학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견뎌내고 성장해서 나의 꿈을 이루게 될 순간들을 생각하며 잘 극복할 것입니다.

Q. 졸업하는 기본이 어떤가요?

한편으로는 훌가분하고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생의 옷을 벗는다는 것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기대 반, 걱정 반이네요.

Q. 학교에서 해보면 좋은 활동이 있나요?

국내 타 대학 학생들 또는 국외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 기회는 반드시 지원하시고 경험해보세요. 평소 해오던 생활, 학업과는 달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정적으로 임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사회에 나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최고의 노인체육 전문가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먼 훗날엔 회사를 운영하며 우리 학과 후배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이 제가 가장 원하는 그림입니다. 다 함께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기자 생각



달라지면 좋겠어요

영화 <졸업(graduate, 1988)>은 한 남자가 비행기 안에서 명을 때리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는 집에 가서도 본인의 졸업 축하 파티에 가지 못하고 방 안에만 있다. 그의 아버지가 와서 묻는다. “무슨 일 있니?” 남자는 대답한다. “제 미래가 걱정돼서요, 졸업 후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3년의 졸업을 겪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은 그저 네 번째 졸업이 아니다. 대학교 졸업은 어떤 졸업보다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학생이었고 한 번도 사회에 맨몸으로 나간 적이 없었다. 한국체대에서의 경험이 차가운 사회를 견딜 수 있는 햇볕이기를 바란다.

영화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식에서 같이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나가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주인공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끝냈듯 우리 학생들도 원했던 대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 보호처이자 마지막 관문에서 나와 더 넓은 곳으로 가는 당신을 응원한다.

